

예비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진숙* · 황금주**

The Effects of Nascent Entrepreneu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insook Choi* · Kumju Hw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p-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s variable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Social Identity Theory and, as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established Narcissism, Self-compassion and Career ambi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self-affirmation Theory. In order to verify research hypotheses, 358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prep-entrepreneurs were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cond, career ambi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ublic self-consciousness. Thi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the outcome of Mediating effe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self-compassion, career amb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confirmed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i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words : Narcissism, Self-Compassion, Career Ambi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ublic Self-Consciousness, Entrepreneurial Intention, Social Identity Theory, Self-Affirmation Theory

Received : 2019. 09. 29. Revised : 2020. 01. 12. Final Acceptance : 2020. 02. 11.

** First Author,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e-mail : esmile2001@nate.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Korea, Tel : +82-2-820-5457, e-mail : kumju@cau.ac.kr

1. 서 론

창업가는 '서양의 새로운 문화적 영웅(new cultural hero of the Western world)'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Anderson and Warren, 2011],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과제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Obschonka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국내 자영업자 규모는 2013년 56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창업률은 28.2%로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인 16.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Jung, 2015]. 이 중 처음 창업하는 사람은 69.4%이며, 재 창업은 30.6%로 나타났다. 성별의 비율은 남성이 61.2%로 여성 38.8%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im, 2019].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이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Neneh, 2019]. 이에 본 논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창업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Mahto and McDowell, 2018]. 창업 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을 하는 이유로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3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2019]. 이는 많은 언론에서 창업가를 신화적 영웅이나 위대한 인물로 묘사를 하였으며, 성공한 창업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Mahto and McDowell, 2018]. 반면 한 조사에 의하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다양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창업가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hto and McDowell, 2018].

또한, 창업과 관련된 여러 특성들은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Gupta et al., 2009; Hsu et al., 2016; Hsu et al., 2019]. 예를 들면, 창업자금의 확보의 어려움,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 창업 성공하기까지의 경제 활동(생계유지)문제, 지인(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의 만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Kim, 2019]. 이에 학자들은 왜 사람들은 창업의 높은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업가가 되기로 결심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이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ante and Affum-Osei, 2019]. 그럼에도 아직까지 누가 창업가로서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De Pillis, 1997]. 따라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창업가 개인의 상태와 특성 (traits and characteristics)에 관해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aliendo et al., 2014; Tett et al., 2003].

최근 창업가 정신 연구들은 점점 인지, 동기부여, 감정, 및 정서를 포함하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Baum et al., 2007; Walsh and Cunningham, 2017]. 예를 들면, 감정과 기분(feelings and moods: Baron, 2008), 사전 지식(prior knowledge: Shane, 2000), 인적 자본(human capital: Bhagavatula, Elfring, and Van Tilburg, 2010) 및 인지 프로세스(cognitive processes: Grégoire et al., 2010) 등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창업가 행동 연구에서도 창업가가 되도록 동기부여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Chatterjee and Das, 2015], 개인의 특성(personalities)과 사업 설립에 관한 행동 연구 역시 심리적 특성이 개인에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자극한다고 주장 하였다 [Espiritu-Olmos and Sastre-Castillo, 2015]. 그럼에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 중의 하나가 기존의 연구대상이 된 심리적 특성이 창업과정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Gartner, 1989; Obschonka et al., 2010]. 그 이유는 창업가 정신 학자들과 정책자들이 주로 개인의 커리어를 추구의 한 방법의 하나로서만 창업가의 창업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Neneh, 2019; Zahra, Wright, and Abdelgawad, 2014]. 그 결과 학자들은 창업가의 성격이 커리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sante and Affum-Osei, 2019], 결론적으로 창업을 촉진하는 노력과 연구의 결과 간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다 [Mahto and McDowell, 2018].

하지만 창업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창업의도를 야기하는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Li, 2000),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행동 지향적(계획, 목표 및 전략)이다(Rauch and Frese, 2000). 또한, 개인의 심리적 속성은 창업가의 의사결정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Asante and Affum-Osei, 2019) 개인을 창업가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Begley and Boyd, 1987). 따라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 개인의 상태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Caliendo et al., 2014; Neneh, 2019; Tett et al., 2003). 이에 본 연구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요인들(Chatterjee and Das, 2015)과 창업의도(Hsu et al., 2019)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가치 확인이론을 연구의 틀로써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근거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을 제안 한다. 창업가의 동기부여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행동의 기본이 되는 정체성(Ashforth and Schinoff, 2016)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Mahto and McDowell, 2018), 정체성 이론을 적용하면 개인의 생각, 감정, 신념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가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De la Cruz, Jover, and Gras, 2018; Rosenberg, 1979). 특히, 사회적 정체성은 창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업가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이론으로써(De la Cruz, Jover, and Gras, 2018), 자기(자아) 개념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Tajfel and Turner, 1986). 사회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직업, 책임, 조직뿐만 아니라 일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로 사용되고 있다(Korte, 2007).

사회 정체성이론이란 개인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은 자신이 집단의 구성원임을 인식함으로써 사회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집단 안에서 개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것을 말한다(Tajfel and Turner, 1986). 개인은 자신의 사회 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

러 가지 요인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일관되고 강력한 설정할 수 있다(Mahto and McDowell, 2018). 실제로 창업가와 비창업가는 서로 다른 성향의 모순적인 정체성(paradoxical identities)을 가지고 있으며(Anderson and Warren 2011; Yitshakia and Kroppb, 2016), 높은 정체성은 창업가 정신을 발휘할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Murnieks et al., 2014; Yitshakia and Kroppb, 2016). 사회 정체성은 창업가가 새로운 기업 설립과 성장 및 매각에 이르는 창업의 모든 단계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가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Down and Warren, 2008). 이를 근거로 창업가의 사회 정체성과 관련된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의 두 가지 심리적 특성 변인을 제안한다.

긍정심리자본의 4차원[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은 통합적으로 실행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에 도움을 되는 동기부여 성향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을 나타낸다(Luthans et al., 2010). 이는 사회 정체성 이론의 핵심 중 하나가 개개인의 자아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 정체성 수준에 따라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Tajfel and Turner, 1979; White et al., 2018).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은 누구인가(who an individual is)'와 '누가 될 수 있는가(who s/he can be)'와 같이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는데(Aliyev and Karakus, 2015; Luthans et al., 2007),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도 사회정체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신에 대한 답을 찾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정체성의 핵심인 긍정적인 동기부여 성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기인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자기(social self)'에 집중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는 점(Cheek and Buss, 1981)과 공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점(Scheier and Carver, 1985)에서 사회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회 심리학 이론에 뿌리를 둔 사회적 인식을 중점으로 집단 과정, 집단 간 관계 및

사회적 자기(social self)를 설명하는 이론이다(Guo et al., 2019; Hogg et al., 1995; Tajfel, 1974).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이 적절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믿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하였다(Burnkrant and Page, 1982). 이는 개인이 가정하는 정체성은 개인, 사회 및 문화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Down and Warren, 2008). 즉, 타인에게 주는 자신의 인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공적 자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Fenigstein, 1979).

둘째, 자기 가치 확인이론(self-affirmation Theory)에 근거하여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의 세 가지 변인을 제시한다. 창업가가 지닌 개인의 가치와 동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창업가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유형의 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Gillin and Rushworth, 2005). 왜냐하면 창업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긴 과정이기 때문에(Knight, 2002; McGee et al., 2009; Moroz and Hindle, 2012) 창업가가 스스로 자기 가치 확인을 하게 되면 자기 개념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된다(Armitage and Rowe, 2011; Crocker et al., 2008; Haddock and Gebauer, 2011; Kumashiro and Sedikides, 2005).

자기 가치 확인 이론(Steele, 1988)은 사회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Haddock and Gebauer, 2011; Sherman and Cohen, 2006).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이란 통합된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으로써, 자신의 중요한 이미지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적인 정보에 대해 긍정적이고 도덕적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Armitage and Rowe, 2017). 자기 가치 확인은 사람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rnout et al., 2019). 즉, 개인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자신의 감정, 생각, 의견 및 태도에 대해 부당한 대우나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공격적이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Arnout et al., 2019).

자기 가치 확인 이론가들(Steele, 1988; Tesser, 1988)은 개인은 누구나 긍정적이고 전반적인 자기 평가(self-evaluation)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기가치 확인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가치(self-worth)와 존엄성(integrity)을 유지하고 싶어 하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나 신념 또는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손상된 자아와 자기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위협을 받은 영역과 관련되지 않은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Steele, 1988). 그렇다고 자기 가치 확인이 단순히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갖거나 자신의 강점 및 장점만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직면한 위협을 완충시키고, 위협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Steele et al., 1993). 자기 가치가 손상되는 상황이나 경험에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창업가의 자기 가치 확인 추구하고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심리적 특성 변인을 제안한다. 먼저 나르시시즘은 자신감, 자기 의존성, 창의성(Grijalva and Harms, 2014)과 같은 자신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창업가의 역할과 관련된 자신의 가치를 잘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Anglin et al., 2018). 또한, 나르시스트들은 자기 가치 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강화하는 방법을 활용한다(Morf and Rhodewalt, 2001; Kollmann et al., 2019). 이와 같은 방법은 자기 가치 확인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술 중 하나이다(Arnout et al., 2019).

다음으로 자기 자비는 일상생활의 부정적 사건들이나 고통스러운 사회적 경험들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Leary et al., 2007). 자기 가치 확인 역시 개인의 자아 향상과 더불어 자아 위협에 대처하도록 유도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Sherman and Cohen, 2006; Tesser, 2000). 창업가에게 자기 자비가 필요한 이유는 창업과정에서 심리적 위협은 항상 존재(예: 약간의 실패 및 부정적 경험)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가치 확인은 그러한 위협에 의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자기 타당성(self-adequacy)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Cohen and Sherman, 2014], 자기 타당성과 같은 중요한 개인적 가치의 확인은 자기 자비의 느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Lindsay and Creswell, 2014]. 이는 자기 가치 확인이 자아 위협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Baumeister et al., 1993], 심리적 안락함을 유발하는 것이다[Arnout et al., 2019].

마지막으로 커리어 야망은 창업가 정신을 구축하는데 사용되며[Down and Warren, 2008], 야망의 핵심은 자기 가치 확인과 인정을 필요로 한다[Barsukova, 2015]. 이를 위해 야심 찬 창업가는 사회적으로 가능한 많은 가치를 창출을 함으로써[Hermans et al., 2015], 창업가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커리어 야망을 통해 자기 가치 확인을 하게 되면 자아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미래에 개인적이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삶의 목적의식이 확장되기 때문에 장기 계획 수립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고차원의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ôté and Schwartz, 2002]. 즉, 자기 가치 확인은 개인에게 자부심[Burke and Stets, 1999; Erez and Earley, 1993; Murnieks, 2007]을 갖게 하며, 긍정적 영향을 증가[Burke, 2004; Stets, 2004]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업가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가치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가로서 자기 가치 확인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변인인 나르시시즘과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을 근거하여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을 제안 하였으며,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여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실증 연구의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을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적 틀을 검증함으로써 창업가 정신 연구의 확장에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예비 창업가의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자신의 능력과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써[Contreras et al., 2017] “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 발달 상태”로 정의된다[Ugwu and Okojie, 2016, p. 5]. 긍정심리자본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는데[Aliyev and Karakus, 2015; Luthans et al., 2007],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기 개념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Mikko Vesala et al., 2007]. 자기 개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심리적 자질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Norman et al., 2010], 창업가는 자신의 뚜렷한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려고 한다[Sieger et al., 2016]. 이에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는 자기 개념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의 특성과 자질,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Norman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Combs et al.[2012]는 개인의 정체성 강도와 긍정심리자본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Newman et al., 2014].

Luthans and Youssef-Morgan[2017]은 긍정심리자본을 ‘내부의 영웅(HERO within)’이라고 하였는데, 긍정심리자본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개인의 성공을 돕는 개인적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Avey et al., 2010; Ugwu and Okojie, 2016].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가 되기 위해 사업을 시도하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ron et al., 2016; Bockorny and Youssef-Morgan, 2019]. 예를 들면, 긍정심리자본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인적 자본이나 창업 자금과 같은 형태의 투입보다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Baluku et al., 2016].

Luthans and Youssef-Morgan[2017]은 긍정심리자본을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 등의 4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Baluku et al., 2018], 각 차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신감을 가지고(자기 효능감) 도전 과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2]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

적인 견해(낙관주의), [3] 성공하기 위한 목표(희망)로의 길과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고 필요할 때 방향의 전환, [4] 문제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지지하고 탄력을 회복 (복원력)하는 것”[Luthans et al., 2015, p. 2]이다. 즉,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차원은 노력과 끈기를 가지도록 동기부여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 확률과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돕는 자원들로 이루어져 있다[Bockorny and Youssef-Morgan, 2019].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차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적으로 사용될 때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Baluku et al., 2018; Luthans and Youssef-Morgan, 2017].

긍정 심리자본은 주로 조직 행동,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창업가 정신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시작 되고 있다[Anglin et al., 2018; Baron et al., 2016; Luthans et al., 2007]. 예를 들면, Baron et al.[2016]은 젊은 창업가는 평균 이상의 긍정심리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높은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Anglin et al.[2018]의 연구에서 Kick-starter의 1726개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캠페인을 조사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을 전달하는 창업가가 우수한 모금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on et al.[2009]는 기존 기업 및 창업기업의 CEO가 지니고 있는 긍정심리자본 중에서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이 높은 CEO가 더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창업가 정신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Baluku et al., 2016; Zou et al., 2016], 아직까지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Baluku et al., 2016; Memili et al., 2013]. 특히,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긍정심리자본을 설명할 수 있는 폭 넓은 변수로서의 역할을 검토하는 연구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Jin, 2017].

2.1.1 나르시시즘과 긍정심리자본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키고[Campbell et al., 2011], 자신은 특별하며,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징은 자기사랑(self-love), 과장된 자아상(inflated self-view)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Foster and Campbell, 2007; Wu et al., 2019]. 그러나 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이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도취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아니라 ‘정상적인(normal)’ 심리 중 하나로써 [Miller and Campbell, 2010], 성인의 발달에 필수라고 하였다[McNeal, 2007]. 즉, 나르시시즘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Raskin and Novack, 1989], 나르시시즘이 높은 경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Rhodewalt et al., 1998]. Masterson[1981] 역시 건강한 나르시시즘(Healthy Narcissism)이 건강한 적응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없다면 개인은 자기 존중감, 자기주장, 관심사, 이상, 야망 추구에 필요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McNe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도 예비 창업가의 나르시시즘을 자기존중 표현을 위한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에 나르시시즘은 임상, 사회적 성격, 산업 조직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Foster and Campbell, 2007; Gentile et al., 2013], 이는 나르시시즘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성향과 특성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을 지닌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ampbell et al., 2011],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상반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미래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Mathieu and St-Jean, 2013; Wu et al., 2019]. 예를 들면, Brookes[2015]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대해 높은 신뢰 수준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행동의 기본 동기를 자기 향상의 추구하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Campbell et al., 2004; Mathieu and St-Jean, 2013]. 예를 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높은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높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강한 동기부여를 하며, 자기 향상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Do and Dadvari, 2017; O'Boyle, 2012; Wu et al., 2019).

반면, 나르시시즘은 고위험 성향의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Foster et al., 2009; Lakey et al., 2008) 기업을 창업하는 행동에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Busenitz and Barney, 1997)과 위험 감수성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Grijalva and Harms, 2014; Stewart et al., 1999). 예를 들면, 나르시시즘의 성향은 창업가에게 동기부여 하는 역할을 하며(Kets de Vries, 1996; Grijalva and Harms, 2014), 나르시시스트 창업가들은 투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신시키는데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Anclin et al., 2018).

나르시시즘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르시시즘은 새로운 경력을 성공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며, 나르시시즘과 경력 성공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rschi and Jaensch, 2015). 또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효능감을 잘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es, 2015). 한편, Sedikides et al.(2004)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심리적 건강 및 복원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Farwell and Wohlwend-Lloyd(1998)는 높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긍정적인 성과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낙관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높은 나르시시스트 성향 자는 확고한 자기 확신과 우월성(Emmons, 1987)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Buyl et al., 2019; Gerstner et al., 2013).

지금까지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나르시시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Mathieu and St-Jean, 2013),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나르시시즘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1: 나르시시즘은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자기자비와 긍정심리자본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개인이 부적절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보편적 인간의 관점에서 삶의 한계를 수용하고, 고통이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Neff and Beretvas, 2013). 자기자비는 자신의 고통에 공감하고 회피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친절한 태도로 자신을 대하고자 하는 욕구이다(Neff, 2003b). 즉,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를 되돌아봄으로써, 방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스스로를 바람직하고 우호적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Haddock and Gebauer, 2011). 이와 같은 자기 가치 확인은 자아가 위협 받는 상황에서 완충시키거나 대처자원으로 작용될 수 있다(Steele and Liu, 1983; McQueen and Klein, 2006).

자기자비(SC)는 자기친절(self-kindness),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 마음챙김(mindfulness)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Neff, 2003a; Neff and Beretvas, 2013). 첫째, 자기친절은 가혹한 판단과 자기비판보다는 자기 친절의 확장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말하며, 둘째, 보편적 인간성은 부정적 경험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은 자신만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이면 누구나 같은 상황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인식함으로 타인들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셋째, 마음챙김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들을 회피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Neff, 2003b).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자기 마음을 바로잡는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Neff, 2003a, 2003b; Sabaitytė and Diržytė, 2016). 이와 같이 자기 가치 확인이 잘 이루어진 개인일수록 위협적인 상황에서 위협을 완충시키고, 위협으로 인해 분리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Steele et al., 1993).

자기자비의 본질적인 관심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의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Neff, 2003b).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비로운 개인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Breines and Chen, 2012; Wong et al., 2019).

예를 들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수행이나 외부 기대에 대한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통해 여러 성취 상황에서 숙달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eff et al., 2005).

반면, 자기 자비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경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 감정도 수용할 수 있게 한다(Neff, 2009; Sabaitytė and Diržytė, 2016). 위협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Correll et al., 2004). 예를 들면,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단점, 문제점을 이해하고, 가혹함(harshness)과 자기비판(self-criticism)적 태도보다는 친절과 동정심으로 대응하기 때문에(Leary et al., 2007),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Sabaitytė and Diržytė, 2016). 즉, 자기 가치에 대한 확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를 향상 시키려는 반응이 반사적으로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Sherman and Cohen, 2006).

자기자비와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복, 삶의 만족,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능, 대처 기술, 지혜 및 낙천주의, 회복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eff, 2003a; Neff and Beretvas, 2013; Neff et al., 2005; Neff et al., 2007a; Neff et al., 2007b). 한편, 기질적인 자기자비는 자기 효능감(Iskender, 2009)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eines and Chen, 2012; Williams et al., 2008). 특히, Sabaitytė and Diržytė(2016)의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자비와의 관계 연구에서 자기 자비의 하위 차원인 자기 친절은 긍정심리자본의 자기 효능감과 희망과 관련이 있으며, 보편적 인간성은 자기 효능감, 희망 및 낙관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은 자기 효능감과 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자기자비와 긍정심리자본은 많은 긍정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abaitytė and Diržytė, 20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업 상태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자비는 긍정적인 대처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abaitytė and Diržytė, 2016).

자기자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지만(Neff, 2009; Neff and Beretvas, 2013)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자기자비와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자비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유추 해볼 수 있다.

H2: 자기자비는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공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란 자신을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향을 의미한다(Martin and Debus, 1999).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며, 자신의 사고를 숙고하는 개인의 안정적인 성향을 말한다(Fenigstein et al., 1975).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방식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맞도록 행동하려고 노력한다(Fenigstein et al., 1975; Scheier et al., 1978).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사회 정체성은 개인이 어떤 상황(환경)에 진입(소속)하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요구하거나 얻고자 하는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Burnkrant and Page, 1982).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 역시 사회적 단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Fenigstein, 1979),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로서 공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Scheier and Carver, 198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비 창업가의 공적 자의식은 창업가로서 커리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보고, 창업가로서의 '사회적 자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적 자의식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대상으로서 '사회적 자기(social self)'의 측면을 더 잘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에 대해 염려 하는 경향이 있다(Fenigstein et al., 1975; Martin and Debus, 1999). 즉,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에 대해 신경을 쓴다(Shepperd and Arkin, 1989).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신경쓰는 인상관리에(impression management) 관심을 가진다(Vohs et al., 2005). 결과적으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공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받는다(Shim et al., 2016). 예를 들면,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예의나 인상 형성, 개인의 외현적 행동방식 등으로 구성된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다(Scheier and Carver, 1985). 이러한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Sieger et al., 2016). 즉, 사회 정체성을 얻기 위해 적절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일관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Burnkrant and Page, 1982).

2.2.1 커리어 야망과 공적 자의식

커리어 야망(Career ambition)은 높은 커리어 지향성과 성취동기로서 자신의 커리어에 초점을 두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마음의 동기이자(Choi and Hwang, 2018a, 2018b 재인용; Otto et al., 2017)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욕구의 표현이다(Baluku et al., 2019). 커리어 야망은 개인이 원하는 정도(Harman and Sealy, 2017)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사회적인 명성(Judge and Kammeyer-Mueller, 2012) 및 소득(Ashby and Schoon, 2010)과 같은 외재적인 성공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커리어 야망은 야심에 찬 개인에게는 매력적인 또 다른 사회적 성공의 신호로 작용한다(Judge and Kammeyer-Mueller, 2012). 그러나 본 논문은 커리어 야망을 명성이나 소득과 같은 외재적 성공에만 국한하지 않고, 창업가의 삶의 목표로써 자신의 커리어 발전을 위한 확장된 개념에서의 커리어 야망에 초점을 맞추었다(Choi and Hwang, 2018a, 2018b 재인용).

최근 창업가의 야망이 새로운 연구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창업가의 야망에 대한 크기의 차이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Cassar, 2007). 하지만 실제로 창업가의 야망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Hermans et al., 2015). 한편, 기존의 야망의 개념은 권력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정치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왔다(Lawless and Fox, 2005).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창업가의 야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Hermans et al., 2015). 따라서 야망과 관련하여 다른 가치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Judge and Kammeyer-Mueller, 2012).

커리어 야망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기확신과 사회적 인정을 필요로 한다(Barsukova, 2015). 이에 야심 찬 창업가는 자신의 높은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벤처 설립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Hermans et al., 2012) 창업가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상관리에 대한 동기의 유발로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행동을 실현하는 것과(Van Bommel et al., 2012)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커리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조직에서의 승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한다(Judge et al., 2004). 커리어 야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단서들(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은 정체성 이론의 근원적인 핵심인 상호작용과 같은 의미이다(Murnieks, 2007). 공적 자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 역시 '사회적 자기'가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며(Cheek and Buss, 1981), 사회적 단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Fenigstein, 1979)는 점에서 커리어 야망과 공적 자의식은 상호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커리어 야망은 창업가로서의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사회적 자기'를 표현하는 공적 자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커리어 야망과 공적 자의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H3: 커리어 야망은 공적 자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란 기업을 소유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의 욕구로 정의된다[Asante and Affum-Osei, 2019; Krueger et al., 2000]. 즉, 창업의도는 개인이 자영업을 통해 커리어를 쌓거나 자신의 사업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자질이다[Espiritu-Olmos and Sastre-Castillo, 2015; Fayolle and Liñán, 2014]. 따라서 창업 활동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창업의도는 매우 중요한 예측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Bird, 1988; Bird and Schjoedt, 2009; Carsrud and Brännback, 2009; Chepurenko, 2019; Krueger et al., 2000; Liñán and Chen, 2009; Zhao et al., 2005], 개인이 창업가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Neneh, 2019].

Ajzen[1991]은 의도를 개인이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와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Neneh, 2019]. 한편, 행동관련 연구에서는 의도를 심리적 과정으로 보고, 다른 어느 요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Bird, 1988]. 이와 같은 이유에서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야망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가능하며, 이를 통해 창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Asante and Affum-Osei, 2019]. 예를 들면, Krueger et al.[2000]의 연구에서 높은 창업의도는 높은 창업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sante and Affum-Osei, 2019]. Hmieleski and Corbett[20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의도는 창업가의 성격, 동기부여, 인지 스타일, 사회모델 및 즉흥성향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avidsson[1995]는 창업의도는 일반적 태도(general attitude)인 변화 의지(change-orientation), 경쟁력(competitiveness), 금전 지향(valuation of money), 성취욕(achievement motivation), 자율성(autonomy)과 관련 영역에서의 사고방식(domain attitude)인 보상(payoff), 사회 기여도(societal contribution), 노하우(knowhow)

등의 현재의 취업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창업의도는 노력의 수준뿐만 아니라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나타낸다[Neneh, 2019]. 그러나 창업은 의도적인 과정이자 인지과정으로서 심리학과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Chatterjee and Das, 2015]. 그럼에도 창업가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특성의 영향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Liñán and Fayolle, 2015]. 특히, 예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Kang and Byun,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긍정심리자본 및 공적 자의식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2.3.1 긍정심리자본과 창업의도

Luthans et al.[2004]는 긍정심리자본은 사업의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벤처 기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창업가의 확신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Baluku et al., 2016]. 예를 들면, Ephrem et al.[2019]는 아프리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과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ullough et al.[2014]은 아프가니스탄의 위험지역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창업가의 탄력성 및 자기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불확실한 환경과 스트레스 잘 견디기 때문에 창업가로서 역경과 좌절에 직면하더라도 잘 헤쳐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Bockorny and Youssef-Morgan, 2019]. 한편, Rhoads[2016]는 실패한 벤처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네 가지 하위차원은 각각 창업가의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차원의 통합된 구조를 소유하고 있을 때 미래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개발하고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Contrera et al.[2017]의 비즈니스 연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창업의도는 주로 자기 효능감과 탄력성과 함께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된 구조의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4: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공적 자의식과 창업의도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자기(social self)'로서 공적으로 보이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사회성과 관련이 있으며(Scheier and Carver, 1985), '사회적자기'에 중점을 둔 사회적 정체성(Guo et al., 2019; Hogg et al., 1995; Tajfel, 1974)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창업가의 정체성도 일반적으로 문화적 규범, 사회적 기대 등의 사회 차원에서 개발된다(Williams, 2013). 이러한 이유로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높은 사회적 인식은 벤처를 창출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Wry and York,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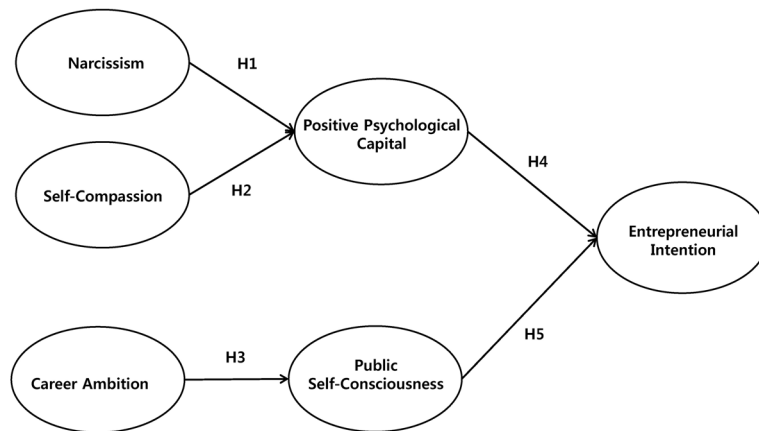
Fauchart and Gruber(2011, p. 93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실한 창조는 본질적으로 사회 활동이며, 조직 자체가 사회 구성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자기 개념의 사회적 측면은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ieger et al., 2016; Whetten and Mackey, 2002). 또한, Bird(1988)는 창업의도가 기회인식 뿐만 아니라 문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형성 된다고 하였다(Shinnar et al., 2012). 예를 들면, Pan et al.(2018)

는 Gruber의 연구(Fauchart and Gruber, 2011; Gruber and MacMillan, 2017)에서 창업가가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은 사회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Wry and York, 2019). 즉, "개인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의 기대치"(Murnieks and Mosakowski, 2007, p. 2)는 잠재적으로 창업가적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Down and Warren, 2008). 지금까지 예비 창업가의 공적 자의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지만 사회 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H5: 공적 자의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 창업가의 나르시시즘 및 자기자비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커리어 야망이 공적 자의식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5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ure 1> Theoretical Model

3.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국(경기, 충청, 경상, 전라, 서울)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 및 회수 하였다. 총 392개의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및 결측치가 존재하는 34개의 데이터를 제외 한 최종 358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 표본의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 203명(56.7%), 여성 155명(43.3%)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124명(34.6%), 30대 115명(32.1%), 50대 39명(10.9%), 20대 73명(20.4%), 60대 6명(1.7%), 70대 이상 1명(0.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 291명(81.3%), 고등학교 졸업 58명(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7명(2.0%)의 응답자도 확인 되었다((Table 1) 참조).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Frequency	Ratio (%)
Gender	Male	203	56.7
	Female	155	43.3
Age	20~29 years	73	20.4
	30~39 years	115	32.1
	40~49 years	124	34.6
	50~59 years	39	10.9
	60~69 years	6	1.7
	Above 70 years	1	0.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1	0.3
	Junior high school	1	0.3
	High school	58	16.2
	Bachelor degree	291	81.3
	Others	7	2.0
Total		358	100.00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및 신뢰성 검증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사랑하고 절대시하며, 자기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한 건강한 자기존중의 표현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Emmons(1987)와 Raskin and Hall (1979)의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중 12문항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르시시즘은 '우월성', '권위', '리더십', '자기 충분성'으로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다 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는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Woo, 2012), 네 개의 항목의 평균값을 최종 분석에서 나르시시즘의 구성항목으로 사용하였다.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865이다.

'자기자비'는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지 않고 온정적으로 돌보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Neff(2003a)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6문항(성격이해, 배려와 온정, 실패 수용, 부족 수용, 고통 수용, 감정의 평정)을 사용하였다.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677이다.

'커리어 야망'은 성공과 성과 및 업적을 위해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의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커리어 야망의 척도는 Elchardus and Smits(2008)의 문항을 참고 후,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5문항(미래 계획, 야심, 목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희망, 경력)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844이다.

'긍정심리자본'은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Luthan et al.(2007)이 개발한 PCQ(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의 24문항을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긍정 심리 자본은 개인의 인지적 동기부여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는 '자기 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낙관주의'로 총4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는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설명이 되는 단일 변수로 사용하였다.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922 이다.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사회적 대상으로서 사회적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인의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Fenigstein et al., 1975]. Fenigstein et al.(1975)가 개발한 SCS (Self-Consciousness Scale)의 7 문항(일의 방식, 타인의식, 공공이미지 의식, 인상관리, 외적 이미지관리, 인상 염려, 외모 관리)을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872이다.

‘창업 의도’는 가까운 미래에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을 있다고 정의하였다. Crant[1996]이 사용한 4문항[창업 의지, 가까운 미래, 중요성, 창업 관심]과 Davidsson[1995]와 Schwarz et al.[2009]이 사용한 2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902이다. 모든 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변수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 검증은 평균상관관계계를 바탕으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신뢰성 평가의 접근 방법에 있어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신뢰성 수준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학자들마다 신뢰성 평가에 대해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ng et al., 2012). [Nunnally and Bernstein, 1994]는 0.7을, Nunnally[1978]은 0.6을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성 계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요인이 일반적인 신뢰도 기준을 넘는 0.6 이상의 값을 보이기 때문에 항목 간 신뢰성 수준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분석에 사용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을 통해 빈도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AMOS 23.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분석, 구조모델 검정 및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각의 구성개념을 측정항목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Table 2>와 같이 적합도 평가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수치는 CMIN/p(=1874), RMR(=0.04), GFI(=0.833),

AGFI(=0.823), CFI(=0.885), NFI(=0.815), IFI(=0.887), TLI(=0.870), RMSEA(=0.06)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CFI와 TLI를 제외한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다(<Table 2> 참고). CFI의 경우 0.885로 적합도 기준인 0.9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근접한 값을 보이기 때문에 수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TLI 역시 0.870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에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RMSEA는 .05에서 .08 사이 범위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Browne and Cudeck, 1993]. 따라서 대부분의 지수들이 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적합지수가 기준치에 합당하여 연구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세부 결과는 탐색적 요인과 동일하게 모든 항목 및 변수에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참고).

4.3 판별 타당성과 상관관계분석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 측정변수들 간에 서로 상이한 개념 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판별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 타당성이란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타 요인들과의 상관계수 값보다 큰 경우 판별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Jo, 2015). <Table 4>에 판별 타당성과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4.4 가설검증

4.4.1 구조모델과 적합도 검정 - 통합모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두 5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구조 방정식의 분석 시 모델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GFI, AGFI, NFI, TLI, RMSEA 등의 지수를 활용한다. 본연구의 통합모델에 대한 적합도 검증결과 CMIN/df(=3.498), RMR(=0.03), GFI(=0.811), AGFI(=0.820), CFI(=0.887), NFI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Fit Index

	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TLI	RMSEA
Results	1.874	0.04	0.83	0.82	0.89	0.82	0.89	0.87	0.06
Standard	$\leq 3(\leq 2)$	≤ 0.05	$\geq 0.9 \geq 0.8$	$\geq 0.9 \geq 0.8$	$\geq 0.9 \geq 0.8$	$\geq 0.9 \geq 0.8$	$\geq 0.9 \geq 0.8$	$\geq 0.9 \geq 0.8$	≤ 0.08 (≤ 0.05)

(=0.849), IFI(=0.888), TLI(=0.865), RMSEA(=0.084)로 나타났다(〈Table 5〉참고). 제시한 적합도 지수들 중 다수의 결과 값들은 기준 값들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충족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Gefen et al., 2003], 모델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Joreskog and Sorbom, 1984]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모델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 Item		coefficient of regression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Cronbach's Alpha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ap12	1	0.679				0.922
	PsyCap5	0.888	0.635	0.079	11.188	.000	
	PsyCap11	0.986	0.731	0.078	12.724	.000	
	PsyCap14	0.83	0.674	0.07	11.815	.000	
	PsyCap1	0.919	0.668	0.078	11.724	.000	
	PsyCap8	0.957	0.743	0.074	12.912	.000	
	PsyCap6	0.729	0.597	0.069	10.562	.000	
	PsyCap2	0.971	0.745	0.075	12.945	.000	
	PsyCap4	0.943	0.776	0.07	13.43	.000	
	PsyCap9	0.86	0.702	0.07	12.275	.000	
	PsyCap3	0.986	0.789	0.072	13.628	.000	
PsyCap7	0.928	0.756	0.071	13.115	.000		
Entrepreneurial intention	EI5	1	0.661				0.902
	EI6	0.93	0.648	0.084	11.04	.000	
	EI3	1.049	0.827	0.077	13.616	.000	
	EI4	0.961	0.824	0.071	13.576	.000	
	EI1	0.978	0.854	0.07	13.966	.000	
	EI2	1.039	0.882	0.073	14.316	.000	
Public self-consciousness	PSC1	1	0.387				0.872
	PSC5	1.508	0.58	0.232	6.494	.000	
	PSC7	1.899	0.693	0.275	6.903	.000	
	PSC4	2.34	0.796	0.326	7.171	.000	
	PSC2	2.058	0.757	0.291	7.081	.000	
	PSC3	2.238	0.823	0.31	7.229	.000	
	PSC6	2.439	0.867	0.334	7.31	.000	
Narcissism	Nar12	1	0.71				0.865
	Nar11	0.87	0.717	0.069	12.656	.000	
	Nar7	1.05	0.775	0.077	13.631	.000	
	Nar8	1.076	0.803	0.076	14.092	.000	
	Nar5	0.714	0.563	0.071	9.994	.000	
	Nar9	1.029	0.713	0.082	12.59	.000	
	Nar4	0.844	0.55	0.086	9.761	.000	
Career Ambition	CA5	1	0.66				0.844
	CA2	1.421	0.8	0.112	12.695	.000	
	CA3	1.343	0.801	0.106	12.709	.000	
	CA1	1.266	0.784	0.101	12.503	.000	
Self-compassion	SC6	1	0.544				0.677
	SC4	1.287	0.684	0.173	7.431	.000	
	SC2	1.331	0.7	0.179	7.422	.000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and Correlation matrix

	Variable	1	2	3	4	5	6
1	Narcissism	.506					
2	Self-compassion	.202**	.487				
3	Career Ambition	.583**	.214**	.647			
4	PsyCap	.616**	.316**	.686**	.810		
5	Public self-consciousness	.223**	-.018	.115*	.050	.478	
6	Entrepreneurial intention	.331**	.070	.417**	.468**	.151**	.554

**p < .001, *p < 0.05, (two-tailed).

† n = 358, Diagonal elements (in bold) are square roots of the AVE values. Off-diagonal elements are the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of interest to the study.

〈Table 5〉 Results for Fitness of SEM

	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TLI	RMSEA
Results	3.498	0.03	0.811	0.820	0.887	0.849	0.888	0.865	0.084
Standard	≤3(≤2)	≤0.05	≥0.9 ≥0.8	≥0.9 ≥0.8	≥0.9 ≥0.8	≥0.9 ≥0.8	≥0.9 ≥0.8	≥0.9 ≥0.8	≤0.08 (≤0.05)

4.4.2 연구모델에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인 창업의도에 있어 독립변수인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과 매개 변수인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두 5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기 위해 AMOS 23.0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참고).

첫째, 나르시시즘이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나르시시즘은 긍정심리자본에(경로계수 = .587, t = 12.165)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을 채택되었다.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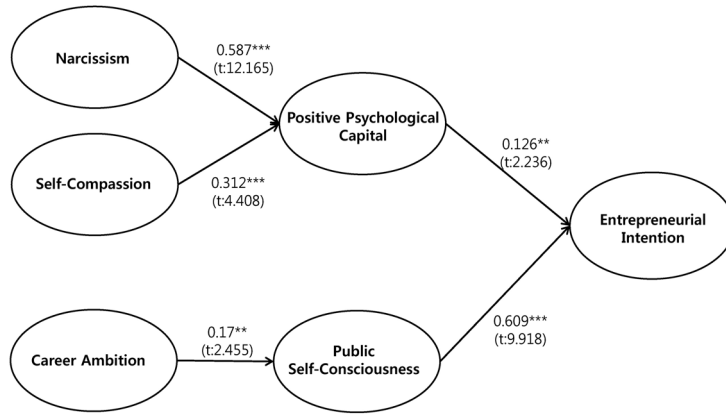
자기자비는 긍정심리자본(경로계수 = .312, t = 4.408)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도 채택되었다. 셋째, 커리어 야망은 공적 자의식(경로계수 = .17, t = 2.455)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3은 채택되었다. 넷째,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도(경로계수 = .126, t = 2.236)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4도 채택되었다. 다섯째, 공적 자의식이 창업의도(경로계수 = .609, t = 9.918)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5도 채택되었다. 〈Table 6〉에 나타난 있는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Figure 2〉 참고).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H	Path	coefficient of regression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Results
H1	Na → PsyCap	0.587	0.661	0.048	12.165	.000***	Supported
H2	SC → PsyCap	0.312	0.236	0.071	4.408	.000***	Supported
H3	CA → PSC	0.17	0.139	0.069	2.455	0.014**	Supported
H4	PsyCap → EI	0.126	0.104	0.057	2.236	0.025**	Supported
H5	PSC → EI	0.609	0.462	0.061	9.918	.000***	Supported
Goodness of fit: CMIN/df = 3.498, p = 0.000; CFI=0.887, GFI =0.81, AGFI=0.820, NFI=0.849, TLI=0.865, RMR=0.03, RMSEA = 0.084							

***p < 0.01, **p < 0.05, *p < 0.1.

† Na(Narcissism), PsyCap(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Self-compassion), CA(Career Ambition), PSC(Public self-consciousness), EI(Entrepreneurial intention).



<Figure 2> Final Model's Results

4.4.3 매개효과 가설 검증

새로운 연구 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강화하고 연구 모델에 대한 검증 결과를 뒷받침하여 모델의 강건성 (robustness)을 높이기 위해 추가분석의 하나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기도 한다(Hong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형에 없는 경로이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직접 경로를 설정하여 변수 사이의 직접 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Choi and Hwang, 2018a.b], 변수 사이의 직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Preacher and Hayes[2004, 2008]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테스트를 500회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나르시시즘→창업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매개 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이 개입되었을 때,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은 .0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직접효과의 유의확률도 .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비→창업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매개 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이 개입되었을 때,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은 .0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직접효과의 유의확률도 .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커리어 야망→창업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매개 변수인 공적 자의식이 개입되었을 때,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은 .0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직접효과의 유의확률도 .0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공적 자의식이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Table 7> 참고).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부 개인만이 창업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atterjee and Das, 2015], 창업 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 의하면 창업가는 창업가가 되도록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Chatterjee and Das, 2015; Davidsson, 1995; Hornaday, 1982]. 또한 심리적 특성은 창업가의 길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sante and Affum-Osei, 2019]. 그럼에도 지금까지 창업가 정신

<Table 7> Mediation Analyses

independent → Mediathing → Dependen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results
Narcissism → PsyCap → EI	0.03	0.045	Partial mediation
SC → PsyCap → EI	0.02	0.018	Partial mediation
CA → PSC → EI	0.047	0.075	Partial mediation

연구의 대부분은 창업가의 행동의 결과인 창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연구되어져 왔다(Shepherd and Haynie, 2009).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창업가와 비창업가와 구별하게 하는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Chatterjee and Das, 2015).

위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본 논문의 목적은 창업가 정신을 수행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을 연구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였다. 자기 가치 확인 이론에 의해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을 제안하였으며,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해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의 변인을 제안하였다. 예비 창업가는 창업 교육에 참여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립한 연구 가설의 실증분석을 통해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5개의 가설 모두 채택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구 모델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와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르시시즘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나르시시즘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가의 나르시시즘은 자기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높이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 높은 창업가는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창업가로서의 사회 정체성을 갖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irschi and Jaensch(2015), Brookes(2015), Gerstner et al.(2013), Buyl et al.(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자기자비가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비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가가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 대한 긍정성의 강화로 인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Neff and Beretvas(2013), Sabaitytė and Diržytė(2016)의 연구결과와 같은 의미이다. 셋째, 커리어 야망이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커리어 야망은 공적 자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야망을 가진 예비 창업가는 공적 자의식을 통해 사회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인성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Judge et al.(2004), Judge and Kammeyer-Mueller(2012), Van Bommel et al.(2012), Hermans et al.(2012)과 뜻을 같이 한다. 넷째, 긍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을 지닌 창업가는 사회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높기 때문에 창업의도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ockorny and Youssef-Morgan(2019), Contrera et al.(2017), Ephrem et al.(2019), Rhoads(201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자의식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 자의식을 가진 창업가는 창업가로서의 사회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창업의도를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Down and Warren(2008), Wry and York(2017)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추가로 검증한 매개효과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나르시시즘 및 자기자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 자의식은 커리어 야망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예비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예비 창업가의 나르시시즘, 자기자비와 커리어 야망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영향을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이 창업가로서의 자기 가치를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변수로서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주로 조직 행동과 관련한 조직정체성을 적용하여 사용되어 왔으나(Norma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체성 이론을 적용하여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셋째, 창업가를 대상으로 공적 자의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으며, 주로 공적 자의식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Kibler et al., 2017; Walsh and Cunningham,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비 창업가의 공적 자의식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실증적

으로 검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자기 가치 확인과 관련된 유발요인이나 효과를 확인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Armitage and Rowe, 2011; Crocker et al., 2008; Haddock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이 창업가의 자기 가치 확인을 위한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자기 가치 확인의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 경영학 및 창업가 정신 연구에서 사회정체성 이론을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Fauchart and Gruber, 2011; Murnieks, 2007; Powell and Baker, 2014; Sieger et al.,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Norman et al., 2010)과 공격적 자의식(Scheier and Carver, 1985)을 적용하여 사회 정체성 이론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창업가 정신 연구를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Sieger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선행요인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창업가의 나르시시즘은 주로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이 검증 되었다. 따라서 창업가의 나르시시즘을 긍정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창업가의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격유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이해 및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자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창업가는 성공에 대한 희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양가감정(Ambivalence)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창업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즉, 창업 준비과정에서 오는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창업의 특수성과 창업가의 특성이 반영된 '창업가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마음챙김 명상은 스스로

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가의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창업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창업가의 커리어 야망은 경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창업가의 커리어 야망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기 때문에 창업가가 자신의 커리어 야망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치 초월 경영'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공격적 자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성공 창업을 위한 '창업가의 해피 포지션'과 같은 창업가의 긍정심리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한 실크로드 맵, 미래에 대한 낙관적 사고 증진을 위한 투-웨이(two-way)시뮬레이션 전략의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과 고객의 가치 향상 전략과 같은 프로그램을 학습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창업가의 공격적 자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공격적 자의식을 긍정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인상관리 방법으로 창업가의 이미지와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창업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지역 내 '파워 창업가'를 선정하고,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슬로건, 로고, 간판 등의 시각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 기간 지역 신문이나 기관 홈페이지 등에 광고와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창업과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 가치 확인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창업가의 자기 개념과 사회 정체성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창업가로 역할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창업가의 업(業)의 재해석'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관습과 틀에서 벗어나 창업가로서의 실현가치와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예비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에서 나이와 성별과 같은 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자기 가치 확인과 사회 정체성과 관련하여 제한된 변인인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과 긍정심리자본, 공적 자의식에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창업가의 자기 가치 및 다양한 정체성과 관련하여 부정적 또는 방해하는 심리적 특성 차원을 포함한 폭 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한 검증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정체성 이론을 이론적 틀로써 제시하였지만, 향후 사회 정체성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창업가의 사회 정체성에 대한 측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향후 연구과제의 제언을 통해 발견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예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1991, pp. 179-211.
- [2] Aliyev, R. and Karakus, M.,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egative feelings on students' violence tendenc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190, No. 21, 2015, pp. 69-76.
- [3] Anderson, A. R. and Warren, L., "The entrepreneur as hero and jester: Enacting the entrepreneurial discours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29, No. 6, 2011, pp. 589-609.
- [4] Anglin, A. H., Short, J. C., Drover, W., Stevenson, R. M., McKenny, A. F., and Allison, T. H., "The power of positivity?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anguage on crowdfund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33, No. 4, 2018, pp. 470-492.
- [5] Anglin, A. H., Wolfe, M. T., Short, J. C., McKenny, A. F., and Pidduck, R. J., "Narcissistic rhetoric and crowdfunding performance: A social role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33, No. 6, 2018, pp. 780-812.
- [6] Armitage, C. J. and Rowe, R., "Evidence That Self-Affirmation Reduces Relational Aggression: A Proof of Concept Trial", *Psychology of Violence*, Vol. 7, No. 4, 2017, pp. 489-497.
- [7] Armitage, C. J. and Rowe, R., "Testing multiple means of self-affirm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102, No. 3, 2011, pp. 535-545.
- [8] Arnout, B. A., Alkhatib, A. J., Rahman, D. E. A., Pavlovic, S., Al-Dabbagh, Z. S., and Latyshev, O. Y., "Spiritual Intelligence and Self-Affirmation as Predictors of Athletes'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Vol. 9, No. 4, 2019, pp. 104-109.
- [9] Asante, E. A. and Affum-Osei, E.,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choice: The impact of locus of control on aspiring entrepreneurs' opportunity recogni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98, 2019, pp. 227-235.
- [10] Ashby, J. and Schoon, I., "The role of aspirations, ambition and gender in predicting adult social status and earn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7, No. 3, 2010, pp. 350-360.
- [11] Ashforth, B. E. and Mael, F.,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 No. 4, 1989, pp. 20-39.
- [12] Ashforth, B. E. and Schinoff, B. S., "Identity under construction: How individuals come to define themselves in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Vol. 3, 2016, pp. 111-137.
- [13] Avey, J. B., Luthans, F., and Youssef, C. M., "The additive valu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predicting work attitudes and behaviors", *Journal of Management*, Vol. 36, No. 2, 2010, pp. 430-452.
- [14] Baluku, M. M., Kikooma, J. F., and Kibanja, G. M.,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startup capital-entrepreneurial success relation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Vol. 28, No. 1, 2016, pp. 27-54.
- [15] Baluku, M. M., Kikooma, J. F., and Otto, K., "Positive mindset and entrepreneurial outcomes: The magical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utonomy",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Vol. 30, No. 6, 2018, pp. 473-498.
- [16] Baron, R. A.,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3, No. 2, 2008, pp. 328-340.
- [17] Baron, R. A., Franklin, R. J., and Hmieleski, K. M., "Why entrepreneurs often experience low, not high, levels of stress: The joint effects of selection and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Management*, Vol. 42, No. 3, 2016, pp. 742-768.
- [18] Barsukova, O. V., "Bad ambition. Journal of Process Management", *New Technologies*, Vol. 3, No.4, 2015, pp. 8-11.
- [19] Baum, J. R., Frese, M., and Baron, R. A.,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Lawrence Erlbaum, Mahwah, NJ, 2007.
- [20]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and Tice, D. M., "When ego threats lead to self-regulation failure: Negative consequences of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1, 1993, pp. 141-156.
- [21] Begley, T. M. and Boyd, D. P.,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No. 1 1987, pp. 79-93.
- [22] Bhagavatula, S., Elfring, T., van Tilburg, A., and van de Bunt, G. G., "How social and human capital influence opportunity recogni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in India's handloom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5, No. 3, 2010, pp. 245-260.
- [23] Bird, B. J. and Schjoedt, L., "Entrepreneurial behavior: Its nature, scope, recent research,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In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International Studies in Entrepreneurship. Edited by Alan L. Carsrud and Malin Brännback.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LLC, 2009, pp. 327-358.
- [24] Bird, B.,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3, No. 3, 1988, pp. 442-453.
- [25] Bockorny, K. and Youssef-Morgan, C. M., "Entrepreneurs' Courage, Psychologic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0, 2019.
- [26] Breines, J. G. and Chen, S., "Self-compassion increases self-improvement mo-

- 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8, No. 9, 2012, pp. 1133-1143.
- [27] Brookes, J., "The effect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m on self-esteem and self efficacy beyond self-esteem", *Pers. Individ. Dif.*, Vol. 85, 2015, pp. 172-175.
- [28] Browne, M. W. and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Vol. 154, 1993, pp. 136-136.
- [29] Bullough, A., Renko, M., and Myatt, T., "Danger zone entrepreneurs: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and self-efficacy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8, No. 3, 2014, pp. 473-499.
- [30] Burke, P. J. and Stets, J. E., "Trust and Commitment Through Self-Verific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2, No. 4 1999, pp. 347-366.
- [31] Burnkrant, R. E. and Page, T. J., "On the Management of Self Images in Social Situations: & Nbsp: the Role of Public Self Consciousness", in NA -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ume 09, eds. Andrew Mitchell, Ann Abor, MI: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1982, pp. 452-455.
- [32] Busenitz, L. W. and Barney, J. B.,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in large organizations: Biases and heuristics in strategic decision-mak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2, No. 1, 1997, pp. 9-30.
- [33] Buyl, T., Boone, C., and Wade, J. B., "CEO narcissism, risk-taking, and resilience: An empirical analysis in US commercial banks", *Journal of Management*, Vol. 45, No. 4, 2019, pp. 1372-1400.
- [34] Caliendo, M., Fossen, F., and Kritikos, A. 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decisions to become and stay self-employed",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42, No. 4, 2014, pp. 787-814.
- [35] Campbell, W. K., Bonacci, A. M., Shelton, J., Exline, J. J., and Bushman, B. J., "Psychological entitlement: Interpersonal consequences and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83, No. 1, 2004, pp. 29-45.
- [36] Campbell, W. K., Hoffman, B. J., Campbell, S. M., and Marchisio, G., "Narcissism in organizational context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21, No. 4, 2011, pp. 268-284.
- [37] Carsrud, A. L. and Brännback, M., eds.,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Opening the Black Box*, New York: Springer, 2009.
- [38] Cassar, G., "Money, money, money?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entrepreneur career reasons, growth preferences and achieved growth",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 19, No. 1, 2007, pp. 89-107.
- [39] Chatterjee, N. and Das, N., "Key psychological factors as predictors of entrepreneurial success: A conceptual framework",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Vol. 21, No. 1, 2015, pp. 102-114.
- [40] Cheek, J. M. and Buss, A. H.,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No. 2, 1981, pp. 330-339.
- [41] Chepurenko, A., "Non-Routine Entrepreneurs: Another Path of Realiz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dministrative Sciences*, Vol. 9, No. 2:38, 2019, pp. 1-15.
- [42] Cho, C. H., *Statistical Analysis of*

-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 AMOS*, Seoul, Crbooks, 2015.
- [43] Choi, J. S. and Hwang, K. J.,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Ambition and Self-Compassion on Innovation Work Behavior of CEOs and Executives of SM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3, No. 2, 2018a, pp. 139-158.
- [44] Choi, J. S. and Hwang, K. J., "Study on the Effects of Prep-Entrepreneu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ambi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Vol. 19, No. 3, 2018, pp. 135-171.
- [45] Cohen, G. L. and Sherman, D. K., "The psychology of change: Self-affirmation and social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5, 2014, pp. 333-371.
- [46] Combs, G. M., Milosevic, I., Jeung, W., and Griffith, J., "Ethnic identity and job attribute preferences: The role of collectivism and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Vol. 19, No. 1, 2012, pp. 5-16.
- [47] Contreras, F., de Dreu, I., and Espinosa, J. C.,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exploratory study", *Asian Social Science*, Vol. 13, No. 3, 2017, pp. 80-88.
- [48] Correll, J., Spencer, S. J., and Zanna, M. P., "An affirmed self and an open mind: Self-affirmation and sensitivity to argument strengt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0, No. 3, 2004, pp. 350-356.
- [49] Côté, J. E. and Schwartz, S. J., "Comparing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es to identity: Identity status, identity capital, and the individualization proces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5, No. 6, 2002, pp. 571-586.
- [50] Crant, J. M.,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34, No. 3, 1996, pp. 42-49.
- [51] Crocker, J., Niiya, Y., and Mischkowski, D., "Why does writing about important values reduce defensiveness? Self-affirmation and the role of positive, other directed feelings", *Psychological Science*, Vol. 19, No. 7, 2008, pp. 740-747.
- [52] Davidsson P.,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Paper prepared for the RENT IX Workshop*, Piacenza, Italy, Nov. 23 to 24, 1995.
- [53] De la Cruz, M. E., Jover, A. J. V., and Gras, J. M. G., "Influence of the entrepreneur's social identity on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effectuation", *European Research on Management and Business Economics*, Vol. 24, No. 2, 2018, pp. 90-96.
- [54] De Pillis, E., "Predi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A cross-cultural study", In *Allied Academies International Conference Academy of Entrepreneurship, Proceedings*, 1997, p. 22.
- [55] Do, B. R. and Dadvari, A., "The influence of the dark tria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attitude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tudy among students in Taiwan University", *Asia Pac. Manage. Rev.*, Vol. 22, No. 4, 2017, pp. 185-191.
- [56] Down, S. and Warren, L., "Constructing narratives of enterprise: Clichés and entrepreneurial self-identity", *Internatio-*

- 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14, No. 1, 2008, pp. 4-23.
- [57] Elchardus, M. and Smits, W., "The vanishing flexible: Ambition, self-realization and flexibility in the career perspectives of young Belgian adult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Vol. 22, No. 2, 2008, pp. 243-262.
- [58] Emmons, R. A.,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1, 1987, pp. 11-17.
- [59] Ephrem, A. N., Namatovu, R., and Basalirwa, E. M., *Perceived social norms, psychologic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Bukavu*, Education+ Training, 2019.
- [60] Erez, M. and Earley, P. C., *Culture, Self-identity, and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USA, 1993.
- [61] Espiritu-Olmos, R. and Sastre-Castillo, M. A., "Personality traits versus work values: Comparing psychological theor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8, No. 7, 2015, pp. 1595-1598.
- [62] Farwell, L. and Wohlwend-Lloyd, R.,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evaluations, and self-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Vol. 66, No. 1, 1998, pp. 65-83.
- [63] Fauchart, E. and Gruber, M., "Darwinians, communitarians, and missionaries: The role of founder identity in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54, No. 5, 2011, pp. 935-957.
- [64] Fayolle, A. and Liñán, F., "The future of researc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7, No. 5, 2014, pp. 663-666.
- [65] Fenigstein, A.,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No. 1, 1979, pp. 75-86.
- [66] Fenigstein, A., Scheier, M. F., and Buss, A. H.,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3, No. 4, 1975, pp. 522-527.
- [67] Foster, J. D. and Campbell, W. K., "Are there such things as 'Narcissists' in social psychology? A taxometric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No. 6, 2007, pp. 1321-1332.
- [68] Foster, J. D., Misra, T. A., and Reidy, D. E., "Narcissists are approach-oriented toward their money and their friend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3, No. 5, 2009, pp. 764-769.
- [69] Gartner, W. B.,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2, No. 2, 1989, pp. 47-48.
- [70] Gefen, D., Karahanna, E., and Straub, D. W., "Trust and TAM in online shopping: An integrated model", *MIS Quarterly*, Vol. 27, No. 1, 2003, pp. 51-90.
- [71] Gentile, B., Miller, J. D., Hoffman, B. J., Reidy, D. E., Zeichner, A., and Campbell, W. K., "A test of two brief measures of grandiose narcissism: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3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6",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25, No. 4, 2013, pp. 1120-1136.
- [72] Gerstner, W. C., Konig, A., Enders, A., and Hambrick, D. C., "CEO narcissism, audience engagement, and organizational adoption of technological discon-

- tinuit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58, No. 2, 2013, pp. 257-291.
- [73] Gillin, M. and Rushworth, S., “Assessing the personal value systems and motivations of successful serial entrepreneurs”,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2005, pp. 53-63.
- [74] Grijalva, E. and Harms, P. D., “Narcissism: An integrative synthesis and dominance complementarity model”,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Vol. 28, No. 2, 2014, pp.108-127.
- [75] Gruber, M. and MacMillan, I. C., “Entrepreneurial behavior: A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based on identity theory”,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Vol. 11, No. 3, 2017, pp. 271-286.
- [76] Guo, F., Restubog, S. L. D., Cui, L., Zou, B., and Choi, Y., “What determines the entrepreneurial success of academics? Navigating multiple social identities in the hybrid career of academic entrepreneu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12, 2019, pp. 241-254.
- [77] Gupta, V. K., Turban, D. B., Wasti, S. A., and Sikdar, A., “The role of gender stereotypes in perceptions of entrepreneurs and intentions to become an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3, No. 2, 2009, pp. 397-417.
- [78] Haddock, G. and Gebauer, J. E., “Defensive self-esteem impacts attention, attitude strength, and self-affirma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7, No. 6, 2011, pp. 1276-1284.
- [79] Harman, C. and Sealy, R., “Opt-in or opt-out: Exploring how women construe their ambition at early career stage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Vol. 22, No. 4, 2017, pp. 372-398.
- [80] Hermans, J., Vanderstraeten, J., Dejardin, M., Ramdani, D., Stam, E., and van Witteloostuijn, A., “Ambitious entrepreneurship: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University of Antwerp Faculty of Applied Economics, 2012, pp. 1-28.
- [81] Hermans, J., Vanderstraeten, J., van Witteloostuijn, A., Dejardin, M., Ramdani, D., and Stam, E., “Ambitious entrepreneurship: A review of growth aspirations, intentions, and expectations”, In *Entrepreneurial growth: Individual, firm, and region*,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5, pp. 127-160.
- [82] Hirschi, A. and Jaensch, V. K., “Narcissism and career success: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career engagement as media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77, 2015, pp. 205-208.
- [83] Hmieleski, K. M. and Corbett, A. C.,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44, No. 1 2006, pp. 45-63.
- [84] Hogg, M. A., Terry, D. J., and White, K. M., “A tale of two theories: A critical comparison of identity theory with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8, No. 4, 1995, pp. 255-269.
- [85] Hong, I., Kim, W., and Lim, B. H., “The impact of perceived risks upon consumer trust and purchase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1, No. 4, 2011, pp. 1-25.
- [86] Hornaday, J. A., “Research about Living Entrepreneurs”, In: C. A. Kent, D. L. Sexton, and K. H. Vesper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ublishers. 1982.

- [87] Hsu, D. K., Burmeister-Lamp, K., Simmons, S. A., Foo, M. D., Hong, M. C., and Pipes, J. D., "I know I can, but I don't fit": Perceived fit,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34, No. 2, 2019, pp. 311-326.
- [88] Hsu, D. K., Wiklund, J., Anderson, S. E., and Coffey, B. S., "Entrepreneurial exit intentions and the business-family interfa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31, No. 6, 2016, pp. 613-627.
- [89] Iskender, 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assion, self-efficacy, and control belief about learning in Turkish University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37, No. 5, 2009, pp. 711-720.
- [90] Jin, C. H.,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start-up intention among young start-up entrepreneurs: A cross-cultural comparison", *Chinese Management Studies*, Vol. 11, No. 4, 2017, pp. 707-729.
- [91] Jo, C. H., *Statistical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AMOS*, Chungnam, 2015.
- [92] Joreskog, K. G. and Sorbom, D., *Lisrel VI: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User's guide*,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1984.
- [93] Judge, T. A. and Kammeyer-Mueller, J. D., "On the value of aiming high: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mbi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7, No. 4, 2012, pp. 758-775.
- [94] Judge, T. A., Van Vianen, A. E., and De Pater, I. E., "Emotional stability, core self-evaluations, & job outcomes: A review of the evidence &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Human Performance*, Vol. 17, No. 3, 2004, pp. 325-346.
- [95] Jung, J. K., "KB Knowledge Vitamin: Current Status of Self-employed Persons in Korea and Statistics on Birth and Extinction by Sector", *KB Research*, Vol. 15, No. 4, 2015.
- [96] Kang, S. J. and Byun, S. 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founders,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s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2, No. 4, 2017, pp. 85-96.
- [97] Kets de Vries, M. F. R., "The anatomy of the entrepreneur: Clinical observations", *Human Relations*, Vol. 49, No. 7, 1996, pp. 853-883.
- [98] Kibler, E., Mandl, C., Kautonen, T., and Berger, E. S., "Attributes of legitimate venture failure impress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32, No. 2, 2017, pp. 145-161.
- [99] Kim, K. H., "Survey on start-up companies",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9.
- [100] Kim, K. H., *2018 Business Startup Survey*,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9.
- [101] Knight, F. and Risk, H., "Uncertainty and Profit", *Beard Books*, Washington D.C., 2002.
- [102] Korte, R. F., "A review of social identity theory with implications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 31, No. 3, 2007, pp. 166-180.
- [103] Krueger Jr, N. F., Reilly, M. D., and Carsrud, A. L.,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No. 5-6, 2000, pp. 411-432.

- [104] Kumashiro, M. and Sedikides, C., "Taking on board liability-focused feedback: Close positive relationships as a self-bolstering resource", *Psychological Science*, Vol. 16, No. 9, 2005, pp. 732-739.
- [105] Lakey, C. E., Rose, P., Campbell, W. K., and Goodie, A. S., "Probing the link between narcissism and gambling: the mediating role of judgment and decision-making biase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Vol. 21, No. 2, 2008, pp. 113-137.
- [106] Lawless, J. L. and Fox, R. L., *It takes a candidate: Why women don't run for off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107] Leary, M. R., Tate, E. B., Adams, C. E., Allen, B. A., and Hancock, J., "Self-compassion & reactions to unpleasant self-relevant events: The implications of treating oneself kind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5, 2007, pp. 887-904.
- [108] Li, K. C.,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marketing strategies and market performanc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hung Cheng, Chiayi, Taiwan, 2000.
- [109] Liñán, F. and Chen, Y. W.,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3, No. 3, 2009, pp. 593-617.
- [110] Liñán, F. and Fayolle, 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Citation, thematic analyses,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 11, No. 4, 2015, pp. 907-933.
- [111] Liñán, F. and Yi-Wen Chen.,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3, No. 3, 2009, pp. 593-617.
- [112] Luthans F., Youssef, C. M., and Avolio B., *Psychological Capital and Beyon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5.
- [113] Luthans, F. and Youssef-Morgan, C. M., "Psychological Capital: An Evidence-Based Positive Approach",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Vol. 4, 2017, pp. 339-366.
- [114] Luthans, F. and Youssef-Morgan, C. M., "Psychological capital: An evidence-based positive approach",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Vol. 4, 2017, pp. 339-366.
- [115] Luthans, F., Avey, J. B., Avolio, B. J., and Peterson, S. J., "The development and resulting performanc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 21, No. 1, 2010, pp. 41-67.
- [116]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and Norman, S. M.,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 60, No. 3, 2007, pp. 541-572.
- [117] Luthans, F., Luthans, K. W., and Luthans, B. 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Vol. 47, No. 1, 2004, pp. 45-50.
- [118] Luthans, F., Youssef, C. M., and Avolio, B. J.,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119] Mahto, R. V. and McDowell, W. C., "Entrepreneurial motivation: A non-entrepreneur's journey to become an entrepreneur",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 14, No. 3, 2018, pp. 513-526.
- [120] Martin, A. J. and Debus, R. L., "Alternative factor structure for the revised self-consciousnes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72, No. 2, 1999, pp. 266-281.
- [121] Masterson, J., *The narcissistic and borderline disorders: An integrated developmental approach*, New York: Brunner/Mazel, 1981.
- [122] Mathieu, C. and St-Jean, É., "Entrepreneurial personality: The role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55, No. 5, 2013, pp. 527-531.
- [123]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and Sequeira, J. M.,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3, No. 4, 2009, pp. 965-988.
- [124] McNeal, S., "Healthy narcissism and ego state therapy", *Int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Hypnosis*, Vol. 56, No. 1, 2007, pp. 19-36.
- [125] McQueen, A. and Klein, W. M., "Experimental manipulations of self-affirmation: A systematic review", *Self and Identity*, Vol. 5, No. 4, 2006, pp. 289-354.
- [126] Mikko Vesala, K., Peura, J., and McElwee, G., "The split entrepreneurial identity of the farmer",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4, No. 1, 2007, pp. 48-63.
- [127] Miller, J. D. and Campbell, W. K., "The case for using research on trait narcissism as a building block for understanding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Vol. 1, No. 3, 2010, pp. 180-191.
- [128] Morf, C. C. and Rhodewalt, F.,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Vol. 12, No. 4 2001, pp. 177-96.
- [129] Moroz, P. W. and Hindle, K., "Entrepreneurship as a process: toward harmonizing multiple perspectiv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6, No. 4, 2012, pp. 781-818.
- [130] Murnieks, C. and Mosakowski, E., "Who am I? looking inside the' entrepreneurial identity",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007. pp. 2-24.
- [131] Murnieks, C. Y., Mosakowski, E., and Cardon, M. S., "Pathways of Passion: Identity Centrality, Passion, and Behavior among Entrepreneurs", *Journal of Management*, Vol. 40, No. 6 2014, pp. 1583-606.
- [132] Murnieks, C. Y., *Who am I? The quest for an entrepreneurial identity and an investigation of its relationship to entrepreneurial passion and goal-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2007.
- [133] Neff, K. D. and Beretvas, S. N., "The role of self-compa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Self and Identity*, Vol. 12, No. 1, 2013, pp. 78-98.
- [134] Neff, K. D.,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Vol. 2, No. 2, 2003b, pp. 85-102.

- [135] Neff, K. D., "Self-compassion", In M. R. Leary and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9, pp. 561-573.
- [136] Neff, K. D., "The Development &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Vol. 2, No. 3, 2003a, pp. 223-250.
- [137] Neff, K. D., Hsieh, Y. P., and Dejitterat, K., "Self-compassion, achievement goals, and coping with academic failure", *Self and Identity*, Vol. 4, No. 3, 2005, pp. 263-287.
- [138] Neff, K. D., Kirkpatrick, K., and Rude, S. S., "Self-compassion and its link to adap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1, 2007a, pp. 139-154.
- [139] Neff, K. D., Rude, S. S., and Kirkpatrick, K., "An examination of self-compassion in relation to 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1, 2007b, pp. 908-916.
- [140] Neneh, B. N., "From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behavior: The role of anticipated regret and proactive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12, 2019, pp. 311-324.
- [141] Newman, A., Ucbasaran, D., Zhu, F. E. I., and Hirst, G., "Psychological capital: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35, No. S1, 2014, pp. 20-S138.
- [142] Norman, S. M., Avey, J. B., Nimnicht, J. L., and Graber Pigeon, N., "The interactiv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identity on employee organizational citizenship and deviance behaviors",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Vol. 17, No. 4, 2010, pp. 380-391.
- [143] Nunnally, J. C. and, Bernstein, I. H.,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1994.
- [144] Nunnally, J., *Psychometric Methods*,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78.
- [145] O'Boyle, E. H., "A meta-analysis of the Dark Triad and work behavior: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7, 2012, pp. 557-579.
- [146] Obschonka, M., Silbereisen, R. K., and Schmitt-Rodermund, 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developmental outcom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7, No. 1, 2010, pp. 63-72.
- [147] Otto, K., Roe, R., Sobiraj, S., Baluku, M. M., and Garrido Vásquez, M. E., "The impact of career ambition on psychologists' extrinsic and intrinsic career success: The less they want, the more they get",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Vol .22, No. 1, 2017, pp. 23-36.
- [148] Pan, N. D., Gruber, M., and Binder, J., "Painting with all the colors: The value of social identity theory for understanding social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44, No. 1, 2018, pp. 213-215.
- [149] Peterson, S. J., Walumbwa, F. O., Byron, K., and Myrowitz, J., "CEO positive psychological trait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firm performance in high-technology start-up and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Management*, Vol. 35, No. 2, 2009, pp. 348-368.
- [150] Powell, E. E. and Baker, T., "It's what you make of it: Founder identity and enacting strategic responses to advers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57, No. 5, 2014, pp. 1406-1433.

- [151] Preacher, K. J. and Hayes, A. F., "Asymptotic and re 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0, No. 3, 2008, pp. 879-891.
- [152] Preacher, K. J. and Hayes, A. F.,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Vol. 36, No. 4, 2004, pp. 717-731.
- [153] Raskin, R. and Novacek, J.,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3, No. 1, 1989, pp. 66-80.
- [154] Raskin, R. N. and Hall, C. S.,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Vol. 45, No. 2, 1979, pp. 590.
- [155] Rauch, A. and Frese, M., "Psychological approaches to entrepreneurial success: A general model and an overview of finding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15, 2000, pp. 101-142.
- [156] Rhoads, K., "Stepping Stones Or Stumbling Blocks: Psychological Capital And Overcoming New Venture Failure", *Journal of Management*, Vol. 4, No. 2, 2016, pp. 11-21.
- [157] Rhodewalt, F., Madrian, J. C., and Cheney, S., "Narcissism, self-knowledge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activity: The effect of daily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4, No. 1, 1998, pp. 75-87.
- [158]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NY: Basic Books, 1979.
- [159] Sabaitytė, E. and Diržtė, A., "Psychological capital, self-compa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unemployed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 Biopsychosocial Approach*, No. 19, 2016, pp. 49-63.
- [160] Scheier, M. F. and Carver, C. S.,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Vol. 4, No. 3, 1985, pp. 219-247.
- [161] Schwarz, E. J., Wdowiak, M. A., Almer-Jarz, D. A., and Breitenacker, R. J., "The effects of attitudes and perceived environment conditions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 An Austrian perspective", *Education + Training*, Vol. 51, No. 4, 2009, pp. 272-291.
- [162]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and Rusbult, C.,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7, No. 3, 2004, pp. 400-416.
- [163] Shane, S., "Prior knowledge and the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Organization Science*, Vol. 11, No. 4 2000, pp. 448,469.
- [164] Shepherd, D. and Haynie, J. M., "Birds of a feather don't always flock together: Identity management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4, No. 4, 2009, pp. 316-337.
- [165] Shepperd, J. A. and Arkin, R. M., "Self-handicapping: The moderating role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task import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5, No. 2, 1989, pp. 252-265.
- [166] Sherman, D. K. and Cohen, G. L., "The psychology of self-defense: Self-affirmation theory", *Advances in Experi-*

- 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8, 2006, pp. 183-242.
- [167] Shim, M., Lee-Won, R. J., and Park, S. H., "The self on the Net: The joint effect of self-constru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on positive self-presentation in online social networking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63, 2016, pp. 530-539.
- [168] Shinnar, R. S., Giacomini, O., and Janssen, F., "Entrepreneurial perceptions and intentions: The role of gender and cul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6, No. 3, 2012, pp. 465-493.
- [169] Sieger, P., Gruber, M., Fauchart, E., and Zellweger, T., "Measuring the social identity of entrepreneurs: Sca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31, No. 5, 2016, pp. 542-572.
- [170] Steele, C. M. and Liu, T. J., "Dissonance processes as self-affi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5, No. 1, 1983, pp. 5-19.
- [171] Steele, C. M., "The psychology of self-affirmation: Sus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lf",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1988, pp. 261-302. Academic Press.
- [172] Steele, C. M., Spencer, S. J., and Lynch, M., "Self-image resilience and dissonance: The role of affirm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6, 1993, pp. 885-896.
- [173] Stewart Jr, W. H., Watson, W. E., Carland, J. C., and Carland, J. W., "A proclivity for entrepreneurship: A comparison of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owners, and corporate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4, No. 2, 1999, pp. 189-214.
- [174] Sung, K. W., Han, S. H., and Kim, B. S., "A Study on Ambidextrous Attribute About Problem Solving Tools",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 14, No. 4, 2012, pp. 281-289.
- [175] Tajfel, H. and Turner, J. C.,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M. A. Hogg, and D. Abrams (Eds.), *Intergroup Relations: Essential Readings: Key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Psychology Press, 1979, pp. 94-109.
- [176] Tajfel, H. and Turner, J. C.,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Chicago, IL: Nelson-Hall, 1986.
- [177] Tajfel, H.,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 13, No. 2, 1974, pp. 65-93.
- [178] Tajfel, H., Experiments in a vacuum. In J. Israel and H. Tajfel (Eds.), *The Context of Social Psychology: A critical assessment*, Oxford, England: Academic Press, 1972.
- [179] Tesser, A.,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Academic Press, Vol. 21, 1988, pp. 181-227.
- [180] Tett, R. P., Steele, J. R., and Beauregard, R. S., "Broad and Narrow Measures on Both Sides of the Personality-Job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4, 2003, pp. 335-356.
- [181] Ugwu, C. C. and Okojie, J. O.,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practices and work engagement in Nigeria: The

-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PSYCAP)",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view*, Vol. 6, No. 4, 2016, pp. 71-87.
- [182] Van Bommel, M., van Prooijen, J. W., Elffers, H., and Van Lange, P. A., "Be aware to care: Public self-awareness leads to a reversal of the bystander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8, No. 4, 2012, pp. 926-930.
- [183] Vohs, K. D., Baumeister, R. F., and Ciarocco, N. J., "Self-regulation and self-presentation: regulatory resource depletion impairs impression management and effortful self-presentation depletes regulatory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8, No. 4, 2005, pp. 632-657.
- [184] Walsh, G. S. and Cunningham, J. A.,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ship: Emergence, evolution and future research",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Vol. 12, No. 3, 2016, pp. 163-285.
- [185] Walsh, G. S. and Cunningham, J. A., "Regenerative failure and attribution: Examining the underlying processes affecting entrepreneurial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Vol. 23, No. 4, 2017, pp. 688-707.
- [186] Whetten, D. A. and Mackey, A., "A social actor conception of organizational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organizational reputation", *Business & Society*, Vol. 41, No. 4, 2002, pp. 393-414.
- [187] White, K., Stackhouse, M., and Argo, J. J., "When social identity threat leads to the selection of identity-reinforcing options: The role of public self-awaren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144, 2018, pp. 60-73.
- [188] Williams, J. G., Stark, S. K., and Foster, E. E., "Start today or the very last day? The relationships among self-compassion, motivation, and procrastin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Vol. 4, 2008, pp. 37-44.
- [189] Williams, M. K. L., "Becoming entrepreneurial: Gaining legitimacy in the nascent pha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19, No. 4, 2013, pp. 404-424.
- [190] Wong, C. C. Y., Knee, C. R., Neighbors, C., and Zvolensky, M. J., "Hacking Stigma by Loving Yourself: a Mediated-Moderation Model of Self-Compassion and Stigma", *Mindfulness*, Vol. 10, No. 3, 2019, pp. 415-433.
- [191] Woo, J. P.,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Academy, 2012.
- [192] Woo, J. P.,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Academy, 2012.
- [193] Wry, T. and York, J. G., "An identity-based approach to social enterpris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42, No. 3, 2017, pp. 437-460.
- [194] Wry, T. and York, J. G., "An identity-based approach to social enterpris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42, No. 3, 2017, pp. 437-460.
- [195] Wu, W., Wang, H., Zheng, C., and Wu, Y. J., "Effect of narcissism,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the mediating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0, 2019.

- [196] Yitshaki, R. and Kropp, F., "Entrepreneurial passions and identities in different contexts: A comparison between high-tech and soc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 28, No. 3-4, 2016, pp. 206-233.
- [197] Youssef-Morgan, C. M. and Luthans, F., "Psychological capital and well-being", *Stress and Health*, Vol. 31, No. 3, 2015, pp. 180-188.
- [198] Zahra, S. A., Wright, M., and Abdelgawad, S. G., "Contextualization and the advancement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32, No. 5, 2014, pp. 479-500.
- [199] Zhao, H., Seibert, S. E., and Gerald E. Hills.,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0, No. 6, 2005, pp. 1265-1272.
- [200] Zou, H., Chen, X., Lam, L. W. R., and Liu, X., "Psychological capital and conflict management in the entrepreneur-venture capitalist relationship in China: The entrepreneur perspectiv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34, No. 4, 2016, pp. 446-467.

■ Author Profile

**최진숙**

현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 대학원 외래 교수이며, 중앙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 창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창업 전략과 감정노동, 서비스 경영, 조직문화 등이다.

**황금주**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마케팅 교수로 재직 중이다. 런던 대학교 Imperial College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를 취득하였고, 주요 관심 분야는 과학기술 지식 커뮤니케이션 과 경영, Information System Security, 윤리적 소비자 등이다.